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



“토론을 할 것인지 아닌지의 결정권은 유권자에게 있음을 환기하고 싶다.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 여부는 후보자끼리의 타협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토론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원하는 토론에 몸을 빼는 후보가 있다면 차라리 안목과 리더십을 길러 다음에 출마하라고 권하고 싶다.“

- 케빈리 한국토론대학 교수 -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 발족

한국토론대학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을 운영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는 유권자 국민이 대통령 후보의 됴됨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과연 토론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낮습니다. 해서 토론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토론대학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목해서 볼 예정입니다.

첫째, 토론회를 기획 준비하는 주최 측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다면 TV 토론회는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과연 토론 형식이 후보자들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있는가를 평가하겠습니다.

둘째, 실제 토론회가 진행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대통령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사회자의 역할도 평가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공정한 입장으로, 대통령 후보들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토론회의 마무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주요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평가가 과연 균형 잡힌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토론대학이 만난 실제 유권자들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토론대학에서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은 단 한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라고 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과연 정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전 기획되고 제대로 잘 진행되었는가?>를 토론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활동을 통해 과연 토론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번 평가서는 이번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평가하는 한국토론대학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6일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단>

케빈리 교수, 허향숙 부교수, 손은영 부교수, 최인자 부교수, 이은주 전문코치

I. 평가의 대상

<2022 대선 후보 정책 토론>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vs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2022년 2월 2일 오후 6:25~8:00

CBS 라디오 한판승부 주최/주관

진행 박재홍 앵커

II. 평가

■ 총평 : <품격있는 정책좌담회>

- 인신공격, 네거티브가 배제된 정책 토론이었음. 앞으로 이루어질 토론회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음.
- 하지만, 토론회의 장점을 잘 살린 토론회는 아니었음. 그보다는 정책좌담회같이 진행되었음.

<평가 근거>

- 토론회의 묘미는 뭐니뭐니해도 쟁점 부각 및 각 후보의 차별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지율 차이가 상당한 후보끼리의 토론이다 보니, 서로 공격할 일이 없어 품격은 있되 긴장감이 떨어진 듯.

1. 토론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

총평 : 두 토론 당사자 모두 토론회, 상대방 후보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였음. 하지만 토론회 자체가 갖는 묘미, 즉, 쟁점의 제시와 차별화된 입장의 천명에는 실패한 토론회였음. 결과적으로 토론회가 좌담회처럼 변해버렸음.

- 기존의 다른 대선토론에서 보였던 네거티브 공격이나 일방적인 발언 등이 없어 보기 편안하고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음. 아마 김동연 후보로서는 경제, 행정과 관련된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목표였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인 듯.
- 하지만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좌담회와 다름. 유권자를 이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구별하고 싶어 함. 그러자면 토론 중 쟁점이 명확히 부각되어야 하고, 그 쟁점별로 후보 간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줘야 함. 이 지점에서는 실패.

※ 개선 포인트

- <질문 - 답변>의 단조로운 형식은 토론회를 학술발표회처럼 만들어버린다. 이를 <질문 - 답변 - 재질문 - 재답변>의 구조로 바꿔야.
- 질문방식도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개방적인 질문보다는 “...라는 쟁점에 대해,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상대방 후보는 어떤 입장이지냐?”는 식의 답변의 범위를 한정지어야 쟁점부각에 용이.

1-1. 이재명 후보

총평 : 여유 있게 토론에 임하고, 토론 상대방을 존중했음. 다양한 분야의 행정지식, 정치철학을 보여주는데 성공했음. 하지만, 질문에 답을 하지 않거나, 동문서답하거나, 두루뭉술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 형식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음. 시간 준수, 순서 준수, 발음, 시선처리, 표정 등에서 여유로움과 관록이 묻어났음.
- 내용적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상식과 소신을 소개했음.
- 지지율 차이가 큰 후보를 상대로, 공격적인 질문이나 논리대결을 하기 보다는, 경청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열중했음.
- 그러나, (1) 질문에 대답을 안 하거나 (예를 들어 대장동 사건에 대한 리더의 책임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2) 질문에 다른 초점의 답변을 하거나 (예를 들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야당 측 최근 발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했음.), (3) 현안을 놓치고 있었음 (예를 들어 최근 두 달 동안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말을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을 보였음.).
- 결과적으로, 김동연 후보에 비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두루뭉술해 보였음.

※ 개선 포인트

- 질문의 포인트에 맞게 답변하는 태도가 바람직.
- 답변할 때는 두괄식 구조를 갖는 것이 선명한 느낌을 줄 수 있음.
- 답변할 때는 숫자나 고유명사를 많이 동원해야 구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음.
- 선거 유세로 바쁘더라도 신문 읽기를 통해 현안을 챙길 것.

1-2. 김동연 후보

총평 : 진정성 있게 토론에 임하고, 토론 상대방을 존중했음. 경제통, 행정전문가로서의 경륜을 잘 보여줬음. 그러나,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는 토론을 했다가 보다는, 지지세가 약한 후보로서 자신의 행정경험담을 대통령 후보에게 조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간단히 말해 권력의지가 느껴지지 않았음.

-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시간 준수, 순서 준수, 발음 등 문제없었음. 그러나, 몇 가지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듯. 계속 아래를 내려다보는 습관이라든지, 계속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태도에서 자신감이 떨어져 보였음. 표정도 좀더 자신 있는 표정으로.
-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관료로서의 관록이 돋보였음. 구체적인 데이터 혹은 경험의 제시가 공감을 불러일으켰음.
- 하지만, 권력의지가 드러나지 않았음. 마치 토크쇼의 사회자 혹은 기자와 같은 태도로 상대방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제안을 하는 식의 반응이 많았음.
-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로서 지지율 차이가 큰 후보를 만나 대립각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상대방과의 차별화된 지점을 만들지는 못했음.

※ 개선 포인트

- 토론회에서의 시선 처리에 대해 훈련할 것. 본인이 물 마시는 모습을 평가해볼 것.
- 과거 공직에서의 경험을 스피치에 적절하게 반영할 것.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거 공직에서의 경험을 한풀이하기 위해 출마한 것’이란 느낌을 줄 수 있음.
- 유권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두 후보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싶어 함. 쟁점 부각과 본인의 차별화에 집중할 것.

2. 토론회 기획/설계/준비 평가

총평 : 급히 마련된 토론회임을 감안하면, 의제 선정과 사회자 진행은 무난했음.

- 토론회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송출한 프로그램이라 (1) 접속조차 어려워했을 유권자들이 있었고, (2) 같은 이유로 화면처리도 단순했음.
- 중간의 사회자를 중심으로 여덟팔자로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좋을 뻔했음. 그런데 두 토론자가 정면으로 마주보는 배치라, 3명 모두를 카메라로 찍으면 토론자의 얼굴이 반밖에 보이지 않았음.
- 토론자 두 명을 한 화면에 배치한 경우에도 화면이 단조로웠음.
- 유권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댓글창 외에는 유권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음. 댓글창은 특정 성향의 댓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와 유권자의 반응을 살피는 데는 역부족이었음.
- **토론회 형식**은 모두발언, 공통질문, 자유토론, 주도권토론, 공통질문, 자유토론, 마무리발언의 순서. 그러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지 토론자들이 순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듯 해 보이지 않았음. (각 순서마다 토론자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옴.)
- 유권자로서도 시작 전 토론회 전체적인 흐름을 고지 받지 못해 아쉬웠음.
- 모두발언, 공통질문에서 그 발언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효과적인 입장개진 및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웠음.
- 결국, 하이라이트는 자유토론과 주도권 토론이었음. 이 대목에서는 토론 당사자들이 잘 해줬어야 했음. 하지만 (1) 어떤 후보는 질문보다는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하거나, (2) 답변 다음의 재질문이 이어지지 않아 쟁점을 형성시키는데 실패함. 결과적으로 토론회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지 않음.
-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자막도 없어서 토론자도, 시청자도 사회자의 고지에 의존해야 했음.

※ 개선 포인트

- 토론자의 표정이 잘 보이도록 화면 배치.
- 사전에 토론의 형식이 충분히 고지되어야함.
- 시간 자막이 필요함.
- 토론의 핵심은 쟁점의 부각과 후보자의 차별화. 이를 위해 <질문 - 답변>의 단조로운 형식보다는 <질문 - 답변 - 재질문 - 재답변>의 구조로 바꿔야.

3. 사회자 평가

총평: 사회자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그 진행은 공평했음.

- 사회자의 역할은 합의된 순서를 진행하고, 시간과 각 순서에서의 역할을 고지하는 정도였음. 공정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 사회자가 편향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음.
- 마지막에, 토론회가 끝나고 사회자가 후보자와 인사하는 장면에서 사회자는 이재명 후보와 두 손을 맞잡고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했으나, 김동연 후보와는 대등한 사람끼리 인사하는 것처럼 행동한 점은 아쉬움. 그러나, 이러한 사회자의 잠재의식이 오늘 토론회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 개선 포인트

-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 토론을 다이내믹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음. 하지만, 그 역할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큼. 결국은 선택의 문제일 것.

※ 기타

- 대통령 선거 후보토론이 사실상 실종된 상태에서 물꼬를 튼 토론회로 의미 있었음.
- 급히 마련된 토론회임을 감안하면, 큰 무리 없이, 원만하게 진행된 토론이었음.
- 라디오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송출한 한계를 감안하면, 최선을 다한 토론회였음.
- 진행자, 토론자 모두 원만하게 토론회를 진행하였음.
- 명절 마지막 날 저녁에 편성된 프로그램이라 주목도가 낮았음.

한국토론대학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평가 기준

(2022년 월 일 시 분 ~ 시 분)

1. 토론 개개인에 대한 평가

	후보자A	후보자B	후보자C	후보자D	후보자E
<내용적 측면>					
각 순서에 어울리는 적절한 내용					
- 모두 발언					
- 질의 응답					
- 정리 발언					
쟁점에 대한 이해					
감정 조절					
<형식적 측면>					
시간 준수 포함 각종 규정 준수					
상대방 발언 시 경청 및 메모					
적극적 참여 여부					
적절한 시선 처리					
원고 의존도					
간결한 화법					
속도, 성량, 발음, 성조					
단정한 용모 (옷차림 등)					
적절한 제스처					
상대방, 사회자, 청중에 대한 태도					

2. 토론회 기획/설계/준비 평가

개최기관 / 장소	/
사회자명 / 사회자 평가	/
토론회장 설비	
TV 화면 구성	
토론회 방영 시간	2022년 월 일
토론자 간 실제 토론 시간	총 분
사전 의제수집과 선정	
토론회 진행방식 확정 및 고지	
유권자 참여 (질문 접수)	

3. 사회자 평가

사회자의 진행 (개입 정도)	
토론회 진행 방식 (의제와 순서)	
쟁점 부각	
양자 토론 유도	
질문 및 답변 시간의 제한	
실시간 유권자 참여	

4. 사후 평가

4-1 기존 미디어의 토론회 평가에 대한 한국토론대학의 평가

	미디어 1	미디어 2	미디어 3	미디어 4	미디어 5
토론회 평가 보도					

4-2 한국토론대학이 조사한 유권자의 토론회 평가

유권자 1	
유권자 2	
유권자 3	
유권자 4	